

P.I.R.A.M

‘단어’ 단위의 공부를 ‘문장’ 단위로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출제되고, 우리는 그 문장들을 어떤 ‘생각’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의 정의
2. 재진술
3. 사례 - 원리 연결
4. 고정값

이런 기본 도구 외에도 더 많은 스킬, 방법론이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의 지향점은 결국 이 기본 도구들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것들만 완벽히 체화할 수 있다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 도구가 완벽히 내 머리에, 눈에, 몸에 익숙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교재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테니, 걱정 말고 내 눈 앞의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개념의 정의〉

수능 국어의 특징은 지문 내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의 답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제외하면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사용하셔야 할 개념은 모두 지문 내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오류없이,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뒤의 ‘생각의 전개’ 파트에서 강조할 내용인 ‘화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화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화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독해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더라도, 지문에 정의된 개념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독해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정의’를 평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까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정의’와 ‘수식된 정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정의

말 그대로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단합니다.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설명을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 형태로 표현하면, ‘A란 B이다.’, ‘A은(는) B이다.’ 등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개념의 정의를 체크한다는 것은, ‘A(개념)=B(정의)’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A=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숙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1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가 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 ‘텍스트’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여기서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거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개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정의).

→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위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보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이면 한 지문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써 있는 ‘소비 행위’일 것입니다.

→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텍스트’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웠듯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간/텍스트’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렸다면, ‘쇼윈도’라는 것이 ‘공간’에 위치하며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정의를 훨씬 깊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이렇게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문장들을 통해 더 공부해볼까요?

2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맥놀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정의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S와 V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먼저 해보고 아래 서술된 저의 사고 과정과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 맥놀이란(S) 현상이다.(V) → 무슨 현상이지? →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구나. →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유는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서구나.

→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맥놀이라는 개념이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정보인 '두 개의 소리의 간섭'은 맥놀이의 '정의'가 아니라 맥놀이의 '원인'이니깐요. 물론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이 익숙해지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게되면 '원인'과 같은 다른 정보들도 아무렇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교재의 내용을 성실히 따라온다면 금방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3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사막에 대한 정의가 두 개 등장합니다.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과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라고 말이죠. 두 정의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다음 문단에 나오는 정보들이 어떤 정의와 더 엮여 있는냐를 살피면 됩니다. 뒤의 정보와 엮이는 내용이 곧 '화제'와 직결되는, 더 중요한 '정의'일 테니까요. 역시 이를 판단하려면 두 정의를 손에 꼭 쥐고 있어야겠죠?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

실제 이 지문의 다음 부분을 보면, '저위도/중위도'가 더 중요한 정의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4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이번에는 '프레임'의 정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 프레임은(S) 경계로서의 틀이다.(V) → 어떤 경계지? → 시각 매체에서 화면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구나! → 그 경계가 되는 틀이 프레임이네. '프레임(frame)'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와도 관련된 정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네.

→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이해했더니, 뒤에 '이중 프레임', '이차 프레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예시의 '텍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와 관련된 '이차 프레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하는군요. 앞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레임'과 관련된 정의이지, 그것들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가적인 서술은 여러분의 사고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같이 달려봅시다!

본격적으로 ‘지문’ 단위의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문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화제’ 인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화제의 중요성〉

우리는 지금까지 ‘단어’ 단위의 공부와 ‘문장’ 단위, 그리고 ‘단문’ 단위의 공부까지 끝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금까지 배운 걸 모두 적용하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지문 단위의 독해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문 독해’란 문장 간의 연결을 의미하고,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등 문장 간의 연결은 충분히 연습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문장 간의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하나를 추가할 것입니다. 바로 ‘화제’입니다. 독서 지문은 정말로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잘 쓴 글’이라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 즉 ‘화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하나의 ‘화제’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정보들이 그 ‘화제’를 부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간의 연결’은 결국 ‘화제와의 연결성’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지문을 읽으며 ‘화제’를 정확히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화제’는 ‘중심 개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지문에서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2009학년도 수능)

단순히 화제를 ‘공룡 발자국’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을 통해 공룡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독해는 ‘길찾기’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은 길이 꼬불꼬불하고 갈림길도 많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아가 그 정보는 왜 나왔는지 그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역할’은 결국 ‘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라는 답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보시면, ‘화제’를 다시금 떠올리며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위에서 이야기한 ‘길찾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화제’를 잡고, 그 ‘화제’ 중심으로 문장들을 ‘연결’하는 것. 지문 독해의 기본입니다.

이번 파트에선 이런 ‘길찾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는 왜 나온 거지?’, ‘이게 화제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실제 기출된 지문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봅시다.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06B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 시차 :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미리 생각해 보세요. 화제가 무엇일까요?

만약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의 비교’로 잡았다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니지만, ‘양안 단서’와 달리 ‘단안 단서’의 경우 ‘재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첫 문장이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즉 ‘단안 단서’와 관련된 물음이라는 점을 토대로 ‘단안 단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지문임을 알 수 있어야 해요! 물음의 형식을 취한다는 건, 정말 궁금해서가 아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화제에 해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교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 하나의 대상 쪽, 즉 ‘화제’에 해당하는 대상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화제를 잡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

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각 :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단안 단서’라는 화제를 정확하게 잡고 나면, 나머지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 쉽게 정리됩니다. ‘물체의 상대적 크기’부터 ‘운동 시차’까지 전부 ‘단안 단서’로 모이니까요! 만약 이 지문을 읽다가 중간 ‘결 기울기’ 즈음에서 정보량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단안 단서’라는 화제의 흐름을 다시 잡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 힘은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3문단에서 독해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안 단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문단 첫 줄에서는 ‘운동으로부터’ 얻는 단안 단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정보의 ‘역할’은 화제인 ‘단안 단서’ 중에서도 ‘운동으로부터 얻는 단안 단서’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욱 정교한 독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고로 다음 파트인 ‘카테고리화 - 정보량 줄이기’에서 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드는 문장’ 및 그 관련 정보 처리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도 기대해주면서, ‘화제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한 기출문제들 쪽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설 p.6)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샹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

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 읽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4 읽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해설 p.13)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날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간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㉔ **엮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㉕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5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7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8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 때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9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습득(習得)하게
-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 ④ 터득(攄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출제되기만 하면 항상 무섭게 느껴지는 과학·기술 제재입니다. 과학·기술 제재의 글을 독해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합시다. 과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공부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늘 하루는 그냥 이 부분을 읽는 것으로 끝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제재별 독해 - 과학·기술〉

수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지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보량’이 정말 많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의심해봐야겠죠? 평가원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암기’하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의 포인트는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정보의 활용’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연습했던 ‘정의 살려 읽기’를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 번 제시된 정의가 뒤에 다시 나오면 앞에서 정의해줬던 개념을 살려서 독해하는 거죠. 과학·기술 지문의 경우, 초반부에 지문 이해에 핵심이 되는 정보들을 짚 던져준 다음 후반부에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며 화제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반부에 쏟아지는 정보를 최대한 건디며 정리하고, 후반부에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2문단에서 이렇게 정보 폭탄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며 확실하게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초반부 정보 건디기’를 연습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과학·기술 제재의 글을 독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배워봅시다. 이 지식들을 모두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이 지식들은 과학·기술 지문이 전개될 때 자주 사용되는 ‘메커니즘’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지식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모두 이 지식들의 이해에 쏟아부으셔도 돼요.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읽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봅시다.

— 과학·기술 배경지식

• 관성의 법칙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은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관성의 법칙을 정의하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어, 앞으로 가고 있는 버스에 타고 있는 상상을 해 봅시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멈춰 있으려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몸이 위로 붕 뜨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즉,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관성의 법칙’을 과학의 영역에서만 다루는 것처럼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실생활에서 충분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이니깐요. 예를 들어, 한 번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서 책상에 앉기 힘든 것도 ‘관성’ 때문이에요. 또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

장했을 때 당시 교회에 의해 재판을 받았던 것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교회에게 작용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구요. 어떤 제재의 글을 읽더라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 채로 독해하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 과학계의 패러다임 변화

과학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관성의 법칙’의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아래 기출 예시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패러다임’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생각의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진술’, ‘카테고리 만들기’, ‘고정된 값, 예외에 주목하기’ 등 어떤 독서 지문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고 방식’을 알려드렸죠? 과학자들 역시 어떤 낯선 현상을 마주했을 때, 나름대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듭니다. 당연하게도 이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자들 역시 어떤 ‘사고 방식’을 활용할 텐데, 이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정의를 스스로 학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2008학년도 수능

앞에서 공부했던 ‘동서양의 천문 이론’ 지문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지동설’을 거부했다가 결국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 이랑 똑같죠? ‘기존의 패러다임’이 ‘천동설’이고, ‘변칙 사례’가 ‘지동설’인 거죠. 처음에는 ‘천동설’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지만, 변칙 사례가 많아지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증명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이겨버렸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학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과학 · 기술 지문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 변화는 항상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볼까요?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타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타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타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

1문단

①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②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④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①~③ #정의 제시

처음부터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중요한 건 '유학, 수기, 치인, 성인'이라는 많은 개념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정의들은 모두 화제로 보이는 '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므로, 외운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읽고 가야 합니다.

천천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수기치인'과 '성인'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 이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나다를까 '수기'와 '치인'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정의가 길 때는, 그 정의를 함축하는 한 마디로 다시 정의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수기'는 '자신을 닦는 일'이고, '치인'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 탐구', '앎을 투철히 함', '뜻을 성실하게 함', '마음을 바르게 함'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일들이고, '집안을 바르게 함', '나라를 통치함'과 같은 말들은 모두 나의 외부, 즉 사회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정의를 모두 받아들이려고 하면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수기'와 '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된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학'이란 '자신을 닦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여 하늘의 도리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니, '성'학이라고도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단을 정리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는 아니었나봅니다. '율곡 이이'의 주장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때 '성학집요'라는 책의 내용은 선지에 나오기 쉬우니 미리 체크하자고 했죠?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책'입니다. 율곡은 이 책을 통해 유학의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했다고 해요. 이 이상 사회는 당연히 '수기치인→성인'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포인트를 잡아놓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유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소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율곡'이 어떤 이상을 꿈꿨다는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율곡'의 주장이 이 지문의 화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문단

①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②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③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④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본격적으로 '율곡'의 주장을 체크해봅시다. 그는 '수양론'과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각각 '수기'와 '치인'을 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양론=수기=개인적인 것', '경세론=치인=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문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아가 그 바탕은 '이기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와 '기'를 통해 만물을 설명하는 이론이네요. 하나하나 정리해볼까요?

② #정의 제시 #비교/대조

‘이’와 ‘기’의 정의도 ‘수기’와 ‘치인’의 정의처럼 길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정리하고 가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먼저 ‘이’는 ‘만물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니 형체가 없을 것이고, ‘만물’에 적용되는 것이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한 뒤 나머지 정의는 ‘납득’해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이’라는 정보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 해볼까요? ‘기’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는 ‘이’와 비교되는 대상이니, 같은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칙’이 아닌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만물의 법칙’에 해당하는 ‘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대조를 치밀하게 해 주면 지문에 제시된 내용보다 더욱 선명하게 차이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지문 독해 과정과 선지 판단 과정에서 ‘이’와 ‘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기’는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몰랐던 학생은 여기서 확실하게 지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굳이 ‘이’와 ‘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개념을 동양 철학 관련 지문에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③ #재진술

이러한 ‘이’와 ‘기’는 특정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더불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른 성질을 갖는 건 앞 문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정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정보네요. 다르긴 하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줍시다. 이렇게 만물을 ‘이’,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기론’이네요.

④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이기치묘’의 정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앞 문장의 재진술에 불과합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더불어 존재’한다는 말과 같으니깐요. ‘이기치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일 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네요.

우리는 ‘이기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 ‘수양론’과 ‘경세론’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 ‘수기치인→성인’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까지 체크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수기치인→성인’이라는 화제가 ‘이기론→수양론/경세론’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문장입니다. ‘수양론/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이기론’에 대해 이해할 준비를 해야겠죠?

3문단

①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②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④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이제 본격적으로 ‘수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딱 잡아 놓고, ‘수양론’이 ‘수기’, 즉 개인적인 차원의 ‘수양’을 의미한다는 건 계속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율곡은 ‘수양론’의 기반으로 ‘이통기국’을 주장했다고 해요. 정의 정확히 체크해줍시다. 이는 만물이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을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이’와 ‘다양한 기’예요. ‘이’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본질적 요소이고, ‘기’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적 요소라는 정의를 끌어온다면 가볍게 ‘재진술’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통기국’이라는 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도,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끌고 와 그 정의를 ‘납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독해의 최종 목표는 ‘최대한 많은 문장을 당연한 말로 만들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③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렇게 ‘동일한 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통기국’의 재진술이자, ‘기질변화론’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네요. ‘기질변화론’은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질’을 ‘변화’시키자는 ‘이론’이겠죠? 계속해서 ‘이’는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기’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④ #정의 제시 #정보의 역할

나아가 ‘거경, 공리, 역행’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네요. 이 정의들을 완벽하게 외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모두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아가 이 개념들이 모두 ‘수양’ 방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양론’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잊으면 안 돼요!

⑤ #화제의 흐름 #재진술

결국 이런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세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다른 말로 ‘수기’에서 ‘치인’으로 나아간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기’는 ‘개인적’이고, ‘치인’은 ‘사회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양’을 했으면, 그것을 사회에 펼쳐야 한다는 것이겠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재진술에 불과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정보는 ‘수양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모든 정보를 ‘수양론’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수양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로 옮겨갈 것임을 이야기해주는 친절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정보들이 외게 어가 되지 않습니다.

4문단

①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②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③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④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단어의 의미 살리기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세론’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은 ‘법제 개혁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일 텐데, ‘법 제도’라는 ‘사회적’인 영역에 자신이 ‘수양’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이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②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갑자기 ‘선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와 ‘기’의 재진술일 뿐이죠? ‘이’가 완전하고 ‘기’가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물었고, 그 답변으로 올린 게 바로 ‘만언봉사’라고 합니다. 일단 ‘만언봉사’라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기론’을 바탕으로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법제 개혁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율곡’은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보자마자 ‘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수양론’이든 ‘경세론’이든 모두 ‘이기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니까요. 즉, ‘법제’는 ‘기’, ‘왕도, 오륜 등’은 ‘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 할 수 있는 ‘왕도, 오륜’을 고칠 수는 없으니, ‘기’에 해당하는 ‘법제’를 개혁하여 ‘이’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율곡의 ‘법제 개혁론’, 즉 ‘경세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를 변화시켜 이를 구현한다.’라는 말은 ‘수양론’ 카테고리에서 이해했던 ‘기질 변화

론'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수양론'이든 '경세론'이든 '기질 변화'가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세론' 카테고리에 속하는 '법제 개혁론'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수양론'에서 이야기하던 '기질 변화론'과 같은 말이라는 점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문 지문은 결국 다 '같은 말'만 하니까요.

5문단

①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②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③이 지침이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④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⑤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①~④ #화제의 흐름 #수식된 정의 제시

갑자기 조선의 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 내용들이 결국 율곡의 '경세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수교'라는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을 소개하고 있네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국왕의 하명 형식으로 만든 것이 '수교'입니다. 이 '수교'에서 관찬은 것들만 다시 뽑으면, '록'이라는 이름의 법전이 되네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⑤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러한 '록' 중에서 또 관찬은 것들을 뽑아,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대전'의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인데, '영구히'라는 정의에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구히'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것

이고, 이는 곧 '이'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니까요! 결국 '대전'에 오른 법은 '이'라 여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죠. 2문단에서 '이'와 '기'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어쨌든, '대전'이 '이'의 영역이라면 이는 율곡이 개혁하자는 '법제'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율곡이 개혁하자고 하는 '법제'는 '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대전'의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이'에 속한다는 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체크한 정의를 계속해서 끌고 올 수 있어야 해요!

6문단

①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②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③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④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⑤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⑥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⑦'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①~④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경국대전'은 이런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모은 법전인데, 이는 '양법미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부터 '경국대전'과 '양법미의'를 같은 말로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 '경국대전'에 실린 법들이 '개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율곡의 '경세론'이고, '경세론'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에 주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⑤~⑦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런 법들은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되었고, ‘조종성헌’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양법미의=조종성헌’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도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들이 ‘이’에 속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아가 ‘왕도’라는 ‘이’에 근접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까지 해 주고 있어요.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율곡이 개혁하자고 하는 법제는 이러한 ‘조종성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율곡의 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 잊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7문단

①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②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③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④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⑥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①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종성헌’은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내용이니 율곡의 ‘법제 개혁론’이 이를 변혁하자는 주장일 리가 없죠.

②~④ #재진술

그러면서 진짜로 ‘개혁’해야 할 ‘법제’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이런 법령들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니까 당연히 고쳐야겠죠. 나아가 이 법제들을 모두 ‘기’라고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야 ‘조종성헌’이라는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기’를 변화시켜 ‘이’를 구현한다는 ‘기질 변화론’과 비슷한 원칙은 여기서도 계속 재진술되고 있어요. 정의와 화제를 정확히 잡고 재진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정보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⑤~⑥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에 해당하는 법령들은 ‘이’가 아니므로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 율곡의 ‘법제 개혁론’, 즉 ‘경세론’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기치인’하여 ‘성인’이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율곡’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제보니 모든 정보가 ‘수기치인→성인’이라는 틀 속에 모이고 있죠? 이 긴 지문이 사실은 단 한 줄로 요약되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 역시 ‘수양론’ 카테고리의 ‘기질 변화론’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읽기 전부터 스스로 했어야 하는 생각이었어요. ‘화제’와 ‘정의’, 그리고 ‘카테고리’의 활용을 바탕으로 정보량을 줄일 수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6%	7%	81%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학은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해설	우선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자마자 ‘성인’이라고 재진술할 수 있어야 해요.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죠? 적절하네요.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학집요’라는 책의 내용을 묻고 있네.
해설	‘성학집요’라는 책의 내용을 묻는 선지입니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지어서 조선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으니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책의 내용은 선지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이 지침을 내린 게 법이 된 거였지.
해설	'수교'의 정의를 찾아보면 쉽게 지을 수 있네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려고 내린 지침이 법이 된 게 '수교'니까요. '수교'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도 '율곡의 수양론' 카테고리 속 '조선의 법 체계'라는 흐름에서 나왔다는 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 정도는 돼야 '대전'이지.
해설	역시 '대전'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법전이 되려면 폐단이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지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명시적 근거	6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에 속하는 건데 개정되면 안 되지.
해설	'경국대전'은 '양법미의', '조종성헌' 등과 같은 말 이었고, 이렇게 뺀 법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도'에 근접한 법이니까요. '왕도'라는 '이'에 근접한 것이니, '개정'될 리가 없죠? '경국대전'이 '이'에 속하는 정보임을 파악하고 아주 빠르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지를 얼마나 빠르게 지우는지가 국어 성적 향상의 핵심 요소이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66%	15%	5%	4%

9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와 '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간적 제약'과 '변화 가능 여부'라는 비교 포인트를 명확하게 살려 놓고 해결해봅시다.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재지변은 변하니까 '기'라 할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하지.
해설	일단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에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편 이러한 '기'가 '이'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은 '이기지묘'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정보였죠?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만물의 법칙은 '이'지.
해설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이'였습니다. '이'와 '기'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다면 너무나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런 선지는 단순히 답으로 고르는 것을 넘어서 '빠르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했던 주요한 생각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명시적 근거	7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제 개혁론 그 자체네.
해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곡의 '법제 개혁론' 그 자체입니다.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는 '기'이지만, 이를 개혁하여 조종성헌이라는 '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 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를 변화시키면 ‘이’를 구현할 수 있지.
해설	‘기질 변화론’의 정의네요. 심지어 ‘경세론’ 카테고리에서까지 ‘기’를 변화시켜서 본질적인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기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 있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통기국!
해설	‘이’는 동일하고 ‘기’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지문 전체적으로 재진술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지의 내용이 ‘이통기국’의 정의임을 파악한다면 더욱 훌륭한 풀이가 되겠죠? 정의를 집요하게 체크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8%	5%	61%	12%	4%

10 ①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수기치인(修己治人)

– ‘개인적 차원’의 ‘수기’와 ‘사회적 차원’의 ‘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 이 지문의 전부였습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기치인 저거 아닌데...
해설	‘수기’와 ‘치인’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겐 헛웃음만 나오는 선지네요. 일단 ‘이’는 정화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수기’와 ‘치인’의 정의 자체가 ‘기’를 정화하는 것도 아니죠. 18%의

선택률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정의 체크를 소홀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기지묘는 ‘이’와 ‘기’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해설	‘이기지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기’와 ‘치인’에 대한 얘기도 아닐뿐더러, ‘수기’와 ‘치인’이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죠?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1문단 3번 문장,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기치인 → 성인!
해설	‘수기치인 → 성인’이라는 지문의 큰 틀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선지입니다. ‘수기=수양론’, ‘치인=경세론’은 모두 ‘천도’를 실현해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화제 그 자체이므로 바로 정답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인한테 병폐가 왜 있어?
해설	‘성인’은 기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성인’이 ‘기질적 병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틀렸고, 애초에 ‘수기’와 ‘치인’으로 기질적 병폐를 극복하는 게 ‘이통기국’의 정의도 아니죠?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틀린 선지입니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역행은 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데?
해설	일단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굴리’이기 때문에, ‘역행’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찾아서 틀렸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역행’이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행’은 ‘수기’에서의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었으니까요! 카테고리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0%	7%	7%	15%	11%

11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보기>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주장부터 정확히 체크해야겠네요. 또 다른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독해해봅시다.

[보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현실세계’는 율곡의 ‘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상 세계’는 ‘이’에 해당하는 ‘이데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율곡과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가지묘’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이데아’를 경험한 뒤 기억을 상실하는데, 가장 잘 기억하는 인간이 ‘철학자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좋은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주장이네요. 그럼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보기>를 읽으면서 미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가지묘’라는 관계에 의해 ‘기’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데,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도,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라는 말을 보고서 이런 내용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시공간 제약 안 받지.
해설	<보기>에서 ‘이데아’ 관련 이야기를 읽으며 그것이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이’의 정의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활용해야 하는 선지였네요.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 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대로 써놨네.
해설	‘성인’은 수양, ‘철학자 왕’은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성인’은 ‘수기치인’을 통해 되고, ‘철학자 왕’은 ‘이데아’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해설	‘이’는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하고, ‘이데아’ 역시 <보기>에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둘 다 마음속 ‘추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